

# 수출 신기록에도 에너지가격 폭등에 무역적자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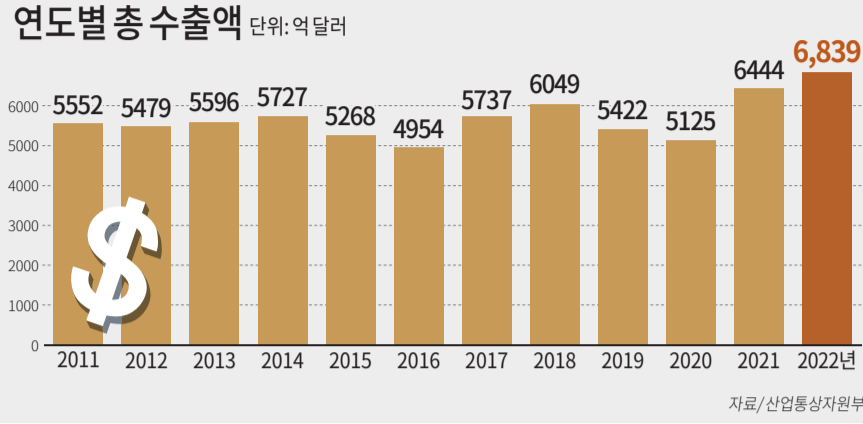
14년 만에 무역적자 기록  
지난해 수출 6839억달러  
에너지수입 784억달러 ↑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액이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72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및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839억달러, 수입은 18.9% 증가한 731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 6000만달러) 이후 14년 만이다. 적자 규모 역시 기존 역대 최고였던 1996년(206억 2000만달러) 기록을 2배 이상 팔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에도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나,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의 3배를 넘으면서 무역 적자를 냈다.

실제로 작년 에너지 수입은 1908억달러로, 전년 대비 784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를 300억달러



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은 전년 대비 784억달러 증가한 1908억달러로, 무역적자 발생에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

에너지 외 산업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구리, 반도체·철강 등 원부자재, 의류·쇠고기 등 소비재도 고르게 증가해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지난해 무역 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은 3.3%로 과거 가장 큰 무역적자가 발생한 1996년(206억달러, 7.4%)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순위는 1~9월 기준 2021년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뛰어 올랐다.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금리인상 등 영

향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10월 이후 수출이 감소했지만 1~9월까지는 해당 월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해 연간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25억 1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연단위에서 일평균 수출 25억달러대에 진입했다. 수출입 모두 증가하며 무역액 1조달러 기록도 최단 기인 지난 9월 13일 달성했다.

산업부는 "주력 품목과 신산업·유망 품목이 고르게 증가하며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한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등 품목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고실적을 경신했고,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반도체 공급개선과 친환경차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7월 이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고유가 영향으로 7개월 연속 5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황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고실적 경신, 2위 수출 품목으로 도약했으며 이차전지 수출은 선진시장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 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두 차례 성장에 성공했다.

시스템반도체·전기차·OLED 등의 품목은 수출이 증가하는 한편 상위품목 내 비중도 확대됐고, 농수산물 수출도 2년 연속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수출성장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중국·독립 국가 연합(CIS) 외 주요 지역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특정국 수출의존도가 완화됐다. 4월 이후 중국 경제성장 둔화, 하반기 이후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존 최고실적인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아세안은 2년 연속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했고 미국 수출도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등과 연계된 자동차·이차전지·기계 등 수출증가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러·우 전쟁발 에너지 공급불안 등으로 유럽연합 경기 전반이 둔화됐음에도 철강·석유제품 등 수출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으며 인도는 내수 전반 상승세, 통신·도로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무선 통신·기계 등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지난해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했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 급증 등 영향으로 큰 폭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10월 이후 수출도 감소를 보이는 만큼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더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는 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는 한편,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와 '수출 캐리반'을 통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한 빈틈 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올 '중진기금' 10조... 위기대응·성장지원

인천공항에 中企 전용 물류센터 구축  
베트남에 고비즈코리아 모델 전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2023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넘었다.

중진공은 올해 중진기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조 239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중진기금 본예산 9조 6618억원보다 5780억원(6%) 증가한 규모다. 복합위기 장기화에 선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관 역할 강화에 중점을 뒀다.

중진공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용자방식의 정책자금 4조 1769억원과 더불어 797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신규로 지원함으로써 민간금융을 유입을 통한 중소기업 금리부담 완화에 나선다.

또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함의 재해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8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수출 중심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물류바우처 예산을 18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억원 증액하고, 수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풀필먼트 지원예산을 76억원으로 26억원 확대 편성했다. 특히 전자상

거래, 전기전자, 의료·바이오 등 중소벤처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예산 252억원을 편성했다. 오는 2024년 하반기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B2B 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 모델을 베트남에 전수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우수기업 추천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해 국가 간 교역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에 대응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예산 198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연간 1만 5000명을 신규로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의결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부가 국토교통부에 특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토록 했다.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문인력양

성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또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과기부, 미래 핵심기술 선점에 6.7조 투자

전년 6조 4161억 비 약 3.9%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6조 6726억원을 투자하는 '2023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2418억원, 정보통신방송기술(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4308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 6조 4161억원 대비 약 3.9%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과학 및 정보통신 기술의 현

방향을 설정해 총 6조 6726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시스템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전략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및 5G·6G 등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과 디지털 혁신기술의 경제·사회 융합 및 확산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누리호 3차 발사와 다목적 실용위성 7호 발사를 성공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한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 2조 132억원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첨단원천유망기술 개발에 45억원, 양자기술개발에 71억원을 투자한다.

/채윤정 기자 echo@

## '운송용역 입찰담합' 사업자에 14억 과징금

동방·세방 등 6개 운송사업자 제재

특수 장비나 숙련된 하차 인력이 필요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입찰담합을 해온 6개 운송사업자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총 510건의 변압기 등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립중앙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9400만원(잡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동방(3억 4900만

원), 세방(3억 6300만원), 한일(3억 3100만원), 케이씨티씨(1억 7300만원), 사립중앙화물(7500만원), 창일중량(1억 300만원) 등이다.

이들 6개사는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이뤄진 운송용역 입찰은 중량물과 경량물로 나뉘는데,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사는 총 10년간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